

[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고위급회의(SLM) 결과]

I. 회의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13년 4월3일(수)-4월4일(목)/파리 OECD 본부
- 안건 : Post-2015 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서 DAC의 적절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
- 참가대상 : 24개 DAC 회원국 및 EU, 유관 국제기구, 비OECD 회원국, TUAC, BIAC 대표 등

II. 주요내용

가. 개발자원

- 개발자원에서 ODA는 여전히 중요한 개발자원이며 특히 ODA의 여타 자원 동원을 위한 레버리징 기능이 강조
 - DAC 회원국들은 ODA 통계 분야에서의 DAC의 전문성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이어질 개발자원 로드맵 작성을 지지함.
 - ODA 개념 현대화와 관련해 Post-2015 논의 등과 맞물려 논의 자체가 가진 정치적 민감성 및 시기적 적절성 등에 관해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표출됨.
 - 개발자원의 다양화와 관련 공여국 지원의도(donor intent) 보다 개도국의 개발효과(recipient benefit) 측면에서 결과 중심 평가를 강조
 - ODA, Non-ODA, Guarantee 등 다양한 개발협력 자원과 모델에 대한 측정과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
 - 개발자원의 다양성과 관련 신흥공여국,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한 DAC의 아웃리치 및 communication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

나. 녹색성장

- 캄보디아와 중국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녹색성장에 관해 언급하고 필요성에 대해 강조
 - － 녹색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입안
-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 모델 수정을 시도중이라고 언급하고, 자연 자원 고갈, 대기 오염 및 ecosystem 악화에 직면, 녹색성장이 국민 복지의 중심 과제라고 설명함.
 - － 에너지 소비 절감, ecosystem과 환경 보호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저탄소 개발 전략 채택
-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내에서의 녹색성장에 관해 언급 및 녹색 성장 고려중임. 환경과 기후변화는 경제와 사회개발 등 범분야적인 기준(common reference)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.
- 한국은 녹색성장 증진을 위한 개도국의 도전과제 해결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종합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와 프레임워크 확립에 대해 강조함.

III. 평가

- 급변하는 개발환경 속에서 ODA 개념 재정립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상당수 DAC회원국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신흥개도국과 DAC 회원국간 가교역할에 대한 기대를 활용하여 DAC내의 입지 강화를 추진
- 녹색성장이 개도국의 실질적인 전략적 도구임을 인식
 - － 녹색성장에 대해 중국, 캄보디아 측 연사를 초청하여 자국 정책 사례를 발표토록 함으로써, 녹색성장이 Post-2015에서 선진국 뿐 아니라 비OECD 국가들의 지지도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